

2010년 육계산업 분야별 총정리

2010년 사료산업을 돌아보며...



엄재상 박사
농협사료 마케팅본부

축산업계 올 한해 최대 화두는 무엇보다 가축 생산비 절감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의 정책과제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TF(Task Force)팀이 구성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 및 협의를 거쳐 비전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추진과제들을 수행하고, 축종별 심포지움을 통해 많은 의견과 방향이 제시되었다. 생산비 절감 노력은 1회성 관심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해보다 축산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은 것 같다.

올해 배합사료 생산량은 사상 최대로 1,720만톤 이상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양계사료는 27%인 460만톤이고, 육계사료는 200만톤으로 전 축종 공히 전년대비 5% 내외의 사료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사료의 경우 2009년에는 총 5차례에 걸쳐 사료가격을 인하하여 총 23%가 넘는 사

료비를 농가에 환원시켰으며, 올해 5월 농협 사료는 한 차례 가격 인하를 연장하여 농가의 호응을 얻은 반면에 일반회사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

그 당시 구제역 발생으로 의욕을 잃은 농가의 아픔을 감싸주는 차원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시행한 것으로 배합사료 업계에서도 묵묵히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후 7~8월경에 대부분의 회사가 5~6% 선에서 구제역 이전 사료가격으로 환원시켜 지금의 사료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행히도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전체 가축사육수 감소는 없었으며, 가축사육 규모 확대를 비롯한 오히려 축산업계의 성장이 이루어진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양계산업은 고병원성 AI와 같은 큰 질병은 없었으나 고질적인 육계 병아리 품질문제로 인한 사육성적 저하에 따른 농가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1. 2010년 사료 생산 현황

작년 우리나라 배합사료 생산량은 역대 최고의 물량을 쏟아 냈지만 올해 새로운 기록으로 인해 그 빛을 바래게 될 것이 분명하다.

2010년 육계산업 분야별 총정리

2010년 사료산업을 돌아보며...

〈표 1〉 배합사료 생산량(천톤)

구분	2010(A)	2009(B)	2008(C)	누계대비 A/B(%)
양계사료	3,855	3,731	3,606	103.3
양돈사료	4,514	4,355	4,376	104.1
낙농사료	1,064	1,082	1,147	98.3
비육사료	3,804	3,493	3,449	108.9
기타	1,052	866	851	121.5
계	14,350	13,527	13,428	106.1

금년 10월까지의 사료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총 14,350천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3,527천톤으로 6.1% 증가했다. 사료생산량은 가축 사육동향에 따라 좌우되고, 그것은 또 소비시장을 비롯한 주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먼저 한우 사육두수의 경우 2003년 이후 연평균 10%씩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올해 사료생산 물량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양계사료는 10월 현재 3,856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731톤으로 3.3% 증가했다. 육계 사료의 경우 2010년 현재(1~10월) 1,693천톤으로 전년 동기간 1,627천톤 대비 4.1% 증가했는데, 이는 계열업체들의 계육생산량이 다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계사료 역시 275,220톤으로 전년대비 249,480톤에 비해 10.3% 증가로 올해 한해 사육수수 증가가 어느 해 보다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우 및 양돈과 같은 다른 축종의 사

육두수 증가로 사료물량 점유율은 적게나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계 사료의 경우 육계 및 종계사료 증가에 비해 그 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소식에 따르면 산란병아리 생산이 감소하여 중추 입식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그

〈표 2〉 양계사료 품목별 생산실적(톤, 점유율 %)

구분	2010. 1~10 (A)	2009. 1~10 (B)	누계대비 A/B(%)
육추	260,699 (1.8)	252,194 (1.9)	103.4
산란	1,625,787 (11.3)	1,602,060 (11.8)	101.5
육계	1,692,846 (11.8)	1,626,907 (12.0)	104.1
종계	275,220 (1.9)	249,480 (1.8)	110.3
계	3,854,552 (26.9)	3,730,641 (27.6)	103.3

여파로 인해 11월 들어서 산지계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산란용 성계 사육수수 감소와 더불어 계란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시장변화 가속화

올해 주요 변화의 하나로 대형 축산기업의 규모화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림그룹의 경우 전 축종에서 지속적으로 규모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도 도계장과 사료공장을 인수하면서 국내 제일

의 축산기업을 넘어 세계 무대로 향하고 있다.

또 체리부로도 전남에 부분육 가공장과 종계장, 부화장을 짓고, 규모 확장에 나서고 있고, 이지바이오시스템도 나주에 닭고기 가공공장 설립과 성화식품 인수 등 육계 계열화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양계사료, 특히 육계사료는 이들 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에서 상위 10개 회사 및 단체의 사료 생산실적은 70%에 해당되고 있고, 국내 최대

〈표 3〉 업체별 양계사료 생산실적(톤)

구분	2010. 10	2009. 10	증감량	증감(%)	점유율
하림천하제일	798,801	670,267	128,534	19.2	20.7
이지서울사료	376,769	355,251	21,518	6.1	9.8
농협 회원조합	311,687	252,408	59,279	23.5	8.1
농협사료	229,236	211,082	18,154	8.6	5.9
카길에그리퓨리나	171,808	191,490	-19,682	-10.3	4.5
나농	169,918	185,708	-15,790	-8.5	4.4
대한제당	166,652	158,296	8,356	5.3	4.3
흥성사료	139,439	130,251	9,188	7.1	3.6
서부사료	137,357	127,389	9,968	7.8	3.6
대한사료	108,419	103,859	4,560	4.4	2.8
CJ제일제당	102,171	62,576	39,595	63.3	2.7
동아원	98,706	43,702	55,004	125.9	2.6
기타	1,043,589	1,238,362	-194,773	-15.7	27.1
계	3,854,552	3,730,641	123,911	3.3	100.0

2010년 육계산업 분야별 총정리

2010년 사료산업을 돌아보며...

인터업체인 하림그룹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사료물량을 기준으로 20.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이지서울사료가 9.8%로서 양계사료만으로 이들 두 회사가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회사와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3. 주요 사료곡물 수급상황

미국 및 세계의 사료곡물 수급전망에 따르면 2010년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09년 보다는 줄었지만 미국 역사상 3번째 풍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품질 측면에서는 2010년산이 예년에 비해 훨씬 뛰어나며, 11월부터 내년도 옥수수 생산을 위한 준비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2011년에는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에 따르면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미국의 농무성이 발표한 옥수수 생산량은 3억 2,170만톤으로 올해 3억3,300만톤에 비해

1,130만톤이 줄었다. 그러나 대두의 경우에는 9,280만톤이 생산돼 전년 9,150톤에 비해 생산량이 늘었다. 옥수수 생산량이 준 것은 1에 이커(4만3560㎡)당 생산량이 155.8부셀(1부셀=27.216kg)로 전년 164.7부셀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옥수수재고량이 2,290만톤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

또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8억2,000만톤, 소맥은 6억4,100만톤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준이며, 대두는 오히려 소비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했다.

세계 사료곡물 재고량은 옥수수 1억3,240만톤, 소맥은 1억7,470만톤, 대두는 6,142만톤으로 예측됐다. 바이오에탄올에 이용되는 옥수수물량은 1,194만톤으로 더 이상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한 옥수수물량의 1/3가량은 다시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우리나라 주요 원료 수입 현황

(단위: 천톤)

원료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A)	2009/2010(B)	증감(B-A)
옥수수	8,483	8,731	9,311	7,000	7,500	500
대두	1,190	1,231	1,232	1,130	1,200	6.19
대두박	1,773	1,870	1,760	1,850	1,850	0.00

※자료 : USDA(2009)

한편 세계 곡물 기말재고율 하락과 더불어 최근 곡물 선물시장의 투기가 확대되면서 옥수수과 대두 가격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제 곡물 농업관측 11월호에 따르면 옥수수, 대두의 소비량은 지속 증가세를 보여 2010 /2011년도 이들 곡물의 기말 재고율은 전년대비 각각 3.9%, 2.4%, 1%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사료원료 가격 변화

이제는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거의 모든 사료원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축산업계 종사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원료의 가격변화와 수급상황 변화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이 결정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0년 사료가격은 한 차례 인상이 있었지만 2009년 수 차례의 가격 인하와 비교했을 때 농가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국내 사료공장의 원료가격 부담과는 달리 농가의 사료비 부담은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난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밀 선물가격은 10월 평균 톤당 52달러로 전월 평균보다 2.7% 하락했으나 전년대비 29.2% 상승해 여

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밀 선물가격은 투기세력 감소로 전월보다 하락했으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세계 밀 수급 상황은 불안정해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2010/2011년도 옥수수 재고율이 애그플레이션이 있었던 2007/2008년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옥수수 투기세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옥수수 가격은 10월 들어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10월 평균 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15달러로 전월 대비 13.2%상승했다. 이는 2008년 평균보다 3.4% 높은 수준이다.

지난 10월말 밀 선물투기 포지션은 투기 감소로 순매도세로 전환됐으나 옥수수, 대두선물의 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월말 밀, 옥수수, 대두 수입단가는 kg당 각각 0.24달러, 0.23달러, 0.45달러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 곡물가격은 급등하고 있지만 국내에 반영되는데 3~6개월의 시차가 있어 현재까지 국내 수입단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밀 가격 상승으로 내년 상반기 제분의 국내 물가는 27.9% 상승하고 유지 및 식용유 물가는 대두 가격 상승효과로 인해 3.5% 상승하고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배합사료도 6.2% 높아질 것으로

2010년 육계산업 분야별 총정리

2010년 사료산업을 돌아보며...

전망되고 있다.

2011년도 농식품부의 축산·사료산업 정책 방향에 의하면 지난 8월 이후 국제곡물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향후 사료가격이 불안해질 것을 대비하여 정책을 수립할 계획에 있고, 또한 국제곡물가격은 러시아 밀 수출 금지 등으로 8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태다.

옥수수는 2009년 12월 톤당 245달러에서 2010년 5월에는 239달러로 내렸으나, 2010년 9월에는 290달러로 올랐다. 또 소맥은 2009년 12월 톤당 224달러에서 2010년 9월에는 441달러로 올랐다. 반면 대두박은 2009년 12월 톤당 448달러에서 2010년 9월 304달러로 내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앞으로 사료업체에 대한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옥수수 등 수입 사료용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품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즉, 2010년 10개 품목인 할당관세 품목을 2011년에는 18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또 현재 2개 품목이 대상인 할당관세 0% 적용 품목도 내년에는 옥수수, 대두, 대두박 등 1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등 북미로 편중돼 있는 사료곡물 수입국을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 다변화해 원료구매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을 발표했다.

2010년 9월 기준, 해상운임의 경우 환율의 하향안정 추세에 힘입어 톤당 64달러 전후에서 큰 변동이 없으며, 환율 역시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1,180원대에서 안정돼 있다. 또한 4/4분기는 1,122원대로 전망하면서 옥수수 가격 상승부분을 어느 정도는 흡수할 전망이다.

또 2011년 원/달러 환율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하락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주요 투자회사들은 2011년 원/달러 환율과 관련, 1,030~1,069원 선에서 형성될 것

<표 5> 2010년 분기별 환율변화

구분	1/4	2/4	3/4	4/4분기
환율(원/USD)	1,143.3	1,165.7	1,183.3	1,122.8

*자료 : 분기별 평균환율(외환은행)

으로 예측되며, 앞으로 당분간은 무역흑자와 외국자금 유입 등으로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맺음말

작년말 올해 국내외 사료사업 여건은 어둡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사실상 전망한대로 곡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환율 변화도 높지 않은 선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 말 원료가격 상승이 시작되면서 2011년 수입원료의 사용 예정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불안한 마음이 크다.

과거와는 달리 양계·양돈을 포함한 중소가축 사료물량의 증가는 한·육우에 비해 그 증가량이 미미하다. 한우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한우 사육두수 증가의 영향이 크지만 한우 관련 사업 종사자들의 차별화된 노력에 따른 고부가가치 시장환경 형성이라는 것을 양계인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양계사료, 특히 육계사료는 다른 어느 축종보다도 사료회사간 경쟁이 심하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계열업체 및 축산전문 기업들의 규모확대로 시장은 훨씬 더 좁아지고 있고, 그나마 공급되는 사료의 가격은 제 값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사료가격의 인상은 농가나 계열업체 보다 오히려 사료회사의 운신의 폭을 더욱 좁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지면을 통해서나마 바래본다.

끝으로 필자가 이 글에 언급한 회사의 실명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이며, 이미 언론이나 지면에 노출된 정보이기에 사용했음을 밝힌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 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면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 